

보도시점 2026.4.30.(목) 11:00
< 5.1.(금) 조간 >

배포 2026. 4. 30.(목)

한-멕시코 경제·통상 협력 가속화 추진

- 통상교섭본부장, 주한멕시코대사 접견 -
- 한-멕시코 FTA 협상 재개 등 양국 간 통상현안 논의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.30.(목) 카를로스 페냐삐엘 소토(Carlos Peñafiel Soto) 주한멕시코대사를 접견하고, 한-멕시코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.

금번 면담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, 중남미 최대 교역 파트너인 멕시코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.

양측은 한-멕시코 FTA가 양국 간 교역·투자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, ‘22년 이후 중단 상태에 있는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고위급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.

또한 여 본부장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된 멕시코의 관세인상, 7월 예정된 USMCA 재검토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업계 우려사항을 제기하며,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멕시코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.

여 본부장은 “멕시코는 중남미 시장 진출 및 USMCA 공급망 편입을 위한 핵심 교두보”라고 강조하며, “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현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멕시코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상협정정책관	책임자	과 장	박정미 (044-203-5740)
	통상협정정책기획과	담당자	사무관	이창우 (044-203-5742)